

결과: 환자의 평균 나이는 32.0 ± 3.0 세 평균 고환용적은 4.5 ± 1.98 cc, FSH, LH, testosterone은 각각 35.1 ± 12.3 mIU/ml, 15.2 ± 7.5 mIU, 2.3 ± 1.3 ng/ml이었고, 36명 중 10명 (28%)에서 정자채취에 성공하였고 이 중 nonmosaic Klinefelter 증후군 25례 중 4례 (16%), mosaic Klinefelter 증후군 11례 중 6례 (55%)에서 정자추출에 성공하였다. 정자채취에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은 모두 다 나이, 고환용적, FSH, LH, testosterone은 큰 차이가 없었다 ($p > 0.05$).

결론: 이상의 결과에서 과거에 TESE가 불가능하리가 생각되던 Klinefelter 증후군에서 TESE를 이용해 정자추출이 가능하며 시술 전 성공적인 정자채취의 예측인자는 없으나 mosaic Klinefelter의 경우 그 성공율이 nonmosaic Klinefelter 증후군에 비해 의의있게 높았다.

0-10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에서 미세절개 고환조직 채취술 - 기존방법과 비교

미즈메디병원 비뇨기과¹, 산부인과², 불임연구실³

김종현¹ · 최성규¹ · 조정현² · 노성일² · 윤현수³ · 도병록³

목적: 고환조직 채취를 통한 정자추출술 (TESE)은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의 유일한 해결방법이지만 정자형성 세정관을 미리 구별하고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를 채취하기 어려워 많은 환자에서 정자를 성공적으로 얻을 수 없으며, 혈관손상과 조직의 손실로 인하여 고환기능의 나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정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수술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절개 고환조직 채취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 보았다.

대상 및 방법: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8월 24일까지 61명의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시야에서 혈관의 손상을 피하면서 백막의 절개를 가한 후 정자형성 세정관을 찾아보았다. 정자추출여부의 결과를 기존의 방법으로 고환조직 채취술을 받았던 136명의 환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.

결과: 미세절개 고환조직 채취술의 결과 전체 61례 중 성숙정자는 16례 (26%)에서 원형정자는 13례 (21%)에서 찾을 수 있었다.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세분하여 비교해 보면 germ cell aplasia 환자에서 미세절개방법을 통하여 성숙정자를 19% 환자에서 추출할 수 있었는데 반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7.7% 환자에서만 가능하였고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미세절개방법을 사용한 germ cell aplasia 환자 중 Klinefelter 증후군 환자는 6명이었고 2명에서 정자추출이 가능하였고 1명에서 임신되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다. Maturation arrest와 hypospermatogenesis 환자에서는 미세절개방법을 통하여 각각 23%, 100% 환자에서 성숙정자를 얻었고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는 25%, 82% 환자에서 성숙정자를 얻었으며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수술 중 확대시야에서 가능한 한 혈관이 있는 부위를 피하여 절개를 하여 보다 많은 부위의 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다.

결론: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에서 미세절개 고환조직 채취술은 수술로 인한 고환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, 수술장에서 정자형성 세정관 부위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부위의 채취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germ cell aplasia 환자에서 정자의 추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. 하지만 maturation arrest와 hypospermatogenesis 환자에서는 그 유용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.